

위대한 김일성 - 김정일주의당의 강화발전과 주체의 사회주의위업수행에서 새로운 전환적계기로 될 역사적인 대회

제 1 차 전 당 초급 당 위원장 대회 개막



위대한 조선로동당에 운명도 미래도 다 맡기고 당의 명도따라 주체혁명의 최후승리를 향하여 총 돌격, 총대진해나아가고있는 온 나라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의 커다란 관심과 기대속에 제 1차 전당 초급당위원장대회가 12월 23일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 개막되었다.

대회는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의 기치를 높이 들고 인민을 위해 멸사복무하는 백전백승 조선로동당의 존엄과 위용, 혁명적당풍과 파급한 실천력이 비할바없이 과시되고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소집되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의 주체적인 기층조직건설사상과 현명한 명도에 의하여 우리 당은 수만의 강철 같은 초급당 조직들을 가진 전도양양한 당으로 장성강화되어 인민의 천하제일강국을 건설하기 위한 전진대진의 초열기를 승리와 영광으로 빛내어왔다.

혁명과 건설의 앞길에 중중첩첩 걸림이는 엄혹한 시련과 난관속에서 모든 세상에 없는 일심단결, 군민대단결의 위력, 우리 사회의 집단주의적우월성과 사회주의대공모가 힘있게 과시되고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최전성기가 펼쳐지고있는 주체조선의 경이적인 현실은 우리 당이 기층조직인 초급당조직들을 백방으로 강화하여 천만군민을 수령의 유능한전진, 당정책수행위전, 인민 복무전에 총력기시전 할수있는 명도의 빛나는 결실이다.

주체혁명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위하여 투쟁하는 우리 당의 성스러운 행로에서 처음으로 되는 전당초급당위원장들의 대회는 당의 로선과 정책을 직접 집행하는 기본전투단위인 초급당조직들의 전투적기능과 역할을 비상이 높여 우리 당을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의 당으로 더욱 강화하여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최후승리를 앞당기는데서 획기적인 전환의 계기로 된다.

대회에서는 초급당 조직들을 사상과 명도의 유인성이 확고히 보장되고 인민대중과 혼연일체가 이룬 불멸의 통일체로 다지며 당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서 이룩된 성과, 경험들과 결합, 교훈들을 분석총화하고 주체혁명의 새시대의 요구에 맞게 초급당조직들의 사업을 개선강화해나가는데서 나서는 과업과 방도들을 토의하게 된다.

대회에는 당조직들을 우리 당의 사상과 위업에 무한히 충직한

전위조직으로 꾸리고 사회주의수호전과 조국의 무장방어를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하고있는 초급당위원장들과 중앙과 지방의 당인원들이 참가하였다.

제 1차 전당 초급당위원장대회가 열리게 되는 평양체육관은 붉은 당기와 여러가지 장식물들로 단장되어 있었다.

대회장으로 들어서시는 참가자들의 가슴가슴은 조선로동당의 장전사, 건설자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위업을 총칭하게 받들고서 우리 당을 대양의 온함으로 빛나는 주체의 혁명적당, 인민대중을 위해 멸사복무하는 어머니당으로 강화발전시키고 주체조선의 존엄과 위용을 만방에 떨쳐가시는 경애하는 최고명도자 김정일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감사의 정으로 끓어번지고있었다.

원열곡이 울리는 가운데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인신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명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대회주석단에 나오시었다.

순간 전체 대회참가자들은 천체적인 사상리론적예지와 정력적인 명도로 우리 당을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의 당으로 빛내어주시고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을 승리와 영광의 한길로 이끌어가는 경애하는 최고명도자 김정일동지를 우리러 열광적인 박수와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를 터쳐올리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며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인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업적에 빛나고있다고 하면서 그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조선혁명의 려명기에 우리 당의 시원으로 되는 첫 당조직을 결성하고서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들이신 김기남동지, 최태복동지, 리수용동지, 김평해동지, 리만경동지, 오수용동지, 락범기동지, 김영철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들이신 김수길동지, 김능오동지, 박태성동지, 조연준동지와 중앙과 도의 당책임인원들, 모범적인 초급당위원장이 주석단에 자리잡았다.

조선로동당 위원장 김정은동지께서 제 1차 전당초급당

위원장대회 개회사를 하시었다.

개회가 선언되자 《조선로동당 만세》의 노래가 주악되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김기남동지가 보고를 하였다.

보고자는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의 기치높이 백전백승하는 조선로동당의 존엄과 위용이 최상의 경지에서 펼쳐지고 주체혁명의 앞길에 휘황한 전진이 펼쳐지고있는 격동의 시기에 제 1차 전당 초급당위원장대회를 진행하게 된다 고 말하였다.

제 1차 전당 초급당위원장대회에서 보고하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김기남동지

그는 초급당을 중시하는 것은 우리 당의 일관한 로선이며 초급당의 강화이자 전당의 강화이고 혁명위업의 승리이라는것은 주체의 혁명적당건설사에 반영되어있는 불변의 진리라고 강조하였다.

혁명의 준엄한 폭풍우를 뚫고 필승의 한길로만 전진하여온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의 려사는 주체적인 기층조직건설사상을 제시하시고 완벽하게 구현하여오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업적에 빛나고있다고 하면서 그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조선혁명의 려명기에 우리 당의 시원으로 되는 첫 당조직을 결성하고서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들이신 김기남동지, 최태복동지, 리수용동지, 김평해동지, 리만경동지, 오수용동지, 락범기동지, 김영철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들이신 김수길동지, 김능오동지, 박태성동지, 조연준동지와 중앙과 도의 당책임인원들, 모범적인 초급당위원장이 주석단에 자리잡았다.

조선로동당 위원장 김정은동지께서 제 1차 전당초급당

위원장대회 개회사를 하시었다.

개회가 선언되자 《조선로동당 만세》의 노래가 주악되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김기남동지가 보고를 하였다.

보고자는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의 기치높이 백전백승하는 조선로동당의 존엄과 위용이 최상의 경지에서 펼쳐지고 주체혁명의 앞길에 휘황한 전진이 펼쳐지고있는 격동의 시기에 제 1차 전당 초급당위원장대회를 진행하게 된다 고 말하였다.

제 1차 전당 초급당위원장대회에서 보고하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김기남동지

그는 초급당을 중시하는 것은 우리 당의 일관한 로선이며 초급당의 강화이자 전당의 강화이고 혁명위업의 승리이라는것은 주체의 혁명적당건설사에 반영되어있는 불변의 진리라고 강조하였다.

혁명의 준엄한 폭풍우를 뚫고 필승의 한길로만 전진하여온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의 려사는 주체적인 기층조직건설사상을 제시하시고 완벽하게 구현하여오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업적에 빛나고있다고 하면서 그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조선혁명의 려명기에 우리 당의 시원으로 되는 첫 당조직을 결성하고서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들이신 김기남동지, 최태복동지, 리수용동지, 김평해동지, 리만경동지, 오수용동지, 락범기동지, 김영철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들이신 김수길동지, 김능오동지, 박태성동지, 조연준동지와 중앙과 도의 당책임인원들, 모범적인 초급당위원장이 주석단에 자리잡았다.

조선로동당 위원장 김정은동지께서 제 1차 전당초급당

위원장대회 개회사를 하시었다.

개회가 선언되자 《조선로동당 만세》의 노래가 주악되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김기남동지가 보고를 하였다.

보고자는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의 기치높이 백전백승하는 조선로동당의 존엄과 위용이 최상의 경지에서 펼쳐지고 주체혁명의 앞길에 휘황한 전진이 펼쳐지고있는 격동의 시기에 제 1차 전당 초급당위원장대회를 진행하게 된다 고 말하였다.

제 1차 전당 초급당위원장대회에서 보고하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김기남동지

그는 초급당을 중시하는 것은 우리 당의 일관한 로선이며 초급당의 강화이자 전당의 강화이고 혁명위업의 승리이라는것은 주체의 혁명적당건설사에 반영되어있는 불변의 진리라고 강조하였다.

혁명의 준엄한 폭풍우를 뚫고 필승의 한길로만 전진하여온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의 려사는 주체적인 기층조직건설사상을 제시하시고 완벽하게 구현하여오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업적에 빛나고있다고 하면서 그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조선혁명의 려명기에 우리 당의 시원으로 되는 첫 당조직을 결성하고서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들이신 김기남동지, 최태복동지, 리수용동지, 김평해동지, 리만경동지, 오수용동지, 락범기동지, 김영철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들이신 김수길동지, 김능오동지, 박태성동지, 조연준동지와 중앙과 도의 당책임인원들, 모범적인 초급당위원장이 주석단에 자리잡았다.

조선로동당 위원장 김정은동지께서 제 1차 전당초급당

위원장대회 개회사를 하시었다.

개회가 선언되자 《조선로동당 만세》의 노래가 주악되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김기남동지가 보고를 하였다.

보고자는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의 기치높이 백전백승하는 조선로동당의 존엄과 위용이 최상의 경지에서 펼쳐지고 주체혁명의 앞길에 휘황한 전진이 펼쳐지고있는 격동의 시기에 제 1차 전당 초급당위원장대회를 진행하게 된다 고 말하였다.

제 1차 전당 초급당위원장대회에서 보고하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김기남동지

그는 초급당을 중시하는 것은 우리 당의 일관한 로선이며 초급당의 강화이자 전당의 강화이고 혁명위업의 승리이라는것은 주체의 혁명적당건설사에 반영되어있는 불변의 진리라고 강조하였다.

혁명의 준엄한 폭풍우를 뚫고 필승의 한길로만 전진하여온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의 려사는 주체적인 기층조직건설사상을 제시하시고 완벽하게 구현하여오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업적에 빛나고있다고 하면서 그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조선혁명의 려명기에 우리 당의 시원으로 되는 첫 당조직을 결성하고서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들이신 김기남동지, 최태복동지, 리수용동지, 김평해동지, 리만경동지, 오수용동지, 락범기동지, 김영철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들이신 김수길동지, 김능오동지, 박태성동지, 조연준동지와 중앙과 도의 당책임인원들, 모범적인 초급당위원장이 주석단에 자리잡았다.

조선로동당 위원장 김정은동지께서 제 1차 전당초급당